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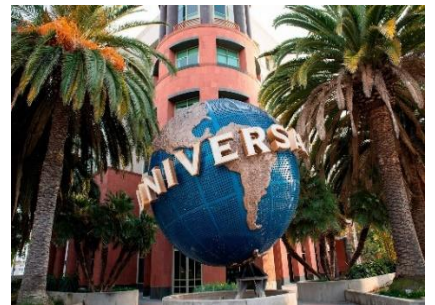
“Universal Music Group (UMG: AEX)”

세계 1위 레코드 레이블

Summary

세계 1위
레코드 기업
암스테르담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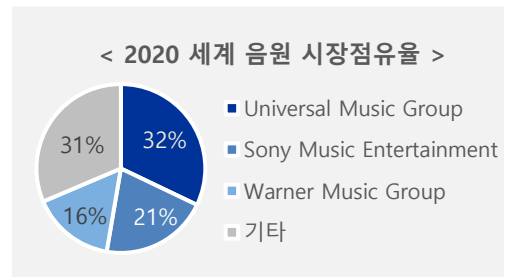
세계 1위 레코드 레이블 **Universal Music Group(유니버설 뮤직그룹, UMG)**이 9월 21일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신주 발행이 없고, 공모금액도 없는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상장이 자금조달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회사 Vivendi(비방디)의 시가총액에 가려 저평가되어 있던 UMG의 가치를 제대로 받기 위해 상장이 이루어졌습니다. 9/21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급등하여 €25.10(34,644원)에 마감했는데, 시가총액이 53조원에 달하는 Deal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처: VALERIE MACON/AFP via Getty Images

글로벌 음원시장
시장점유율 1위

전세계 음원 시장은 Top3 기업의 점유율이 70%에 달합니다. 유니버설 뮤직그룹의 **시장점유율**은 32.1%로, 세계 1위입니다. 20.6%를 차지한 일본의 Sony Music Entertainment가 2위, 15.9%를 점유한 미국의 Warner Music Group이 3위입니다. 세 기업이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UMG는 여러 레이블들을 인수하고 더 많은 아티스트들을 끌어모으며 시장점유율을 늘려왔습니다. 미래에도 UMG는 같은 방식으로 시장점유율을 늘려 시장 내에서의 지위를 확장할 것입니다. 과점 체제 하에서 UMG의 성장이 더욱 기대됩니다.



출처: Music & Copyright(Apr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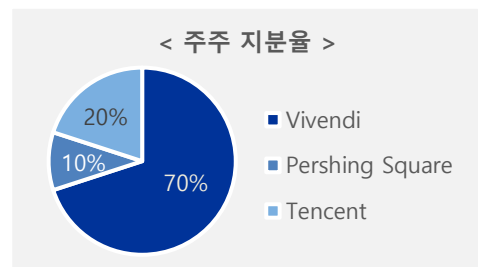
History

오랜 역사를
지닌
레코드 레이블

UMG의 전신 Gramophone-Phillips 그룹은 1962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회사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에 Universal Studios를 소유한 Seagram이 UMG를 인수했으나 이후 재무적인 어려움 때문에 2000년에 매각합니다. 당시 현재의 모회사인 **Vivendi(비방디)**가 UMG를 인수하게 됩니다. 파리에 상장되어 있는 비방디는 음악산업 외에도 방송, 미디어 관련한 프랑스 기업인데 유럽 방송산업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관심 지속

모회사 비방디가 UMG 지분의 7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방디는 상장 이후 지분 60%를 기존 비방디 주주들에게 균등배분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는 10%의 지분만 소유하게 됩니다. 그 외 지분 중 가장 많은 지분은 중국의 텐센트인데 2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장 큰 음악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국시장을 염두에 둔 전략적 지분 매각으로 이해됩니다. 그 다음은 억만장자로 알려진 Bill Ackman(빌 아크만)의 유명 투자회사 Pershing Square가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시장 상장 등을 고려한 포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출처: Universal Music Group투자설명서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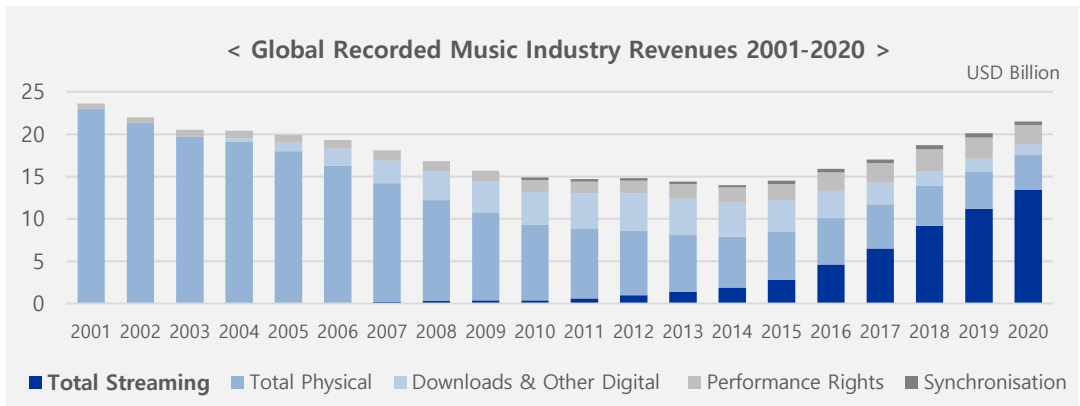
침체에서
급 전환된 성장
지속되고 있는
수익성 주목

매출은 2020년에 10조원 수준인데 Recorded Music, 즉 **음원 판권 사업부**가 2020년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중반부터 2015년까지 침체일로였던 성장세가 2015년을 기점으로 급반전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과 공연 사업이 동시에 음악산업을 되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익성은 이후 매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디지털 음원 수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기업 전체의 EBITDA 마진 추세를 보면, 2018년 16.3%, 2019년 17.7%, 2020년 20%로 매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UR(백만)	2018	2019	2020	1H20	1H21
매출액	6,023	7,159	7,432	3,459	3,831
EBITDA	979	1,267	1,487	649	822
순이익	902	975	1,369	735	453

디지털 혁신으로
부활하는
글로벌 음원산업

전세계 음원 시장 규모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역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음원 산업은 기술 혁신의 힘을 입어 2015년부터 성장으로 급반전되었습니다. **Digital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가 주원인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의 확산과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애플뮤직 등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확장이 동시에 이뤄진 덕분입니다. 음원 시장은 2020년에 2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2014년 15조원대까지 침체된 것을 돌이켜 보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음악서비스 구독자 수는 매해 늘어왔습니다. 2015년에는 7천만명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4억4천만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30년에 12억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가장 주목되는 산업이 된 것입니다. AI 추천 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 발전으로 가장 낙후되었던 음원 시장의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출처: IFPI GLOBAL MUSIC REPORT 2021

Key Insight

핵심은
대체불가능한
음원의 가치

새로운 **기술 혁신**과 **구독경제**라는 구조적 변화가 가장 낙후되었던 음악산업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로 음원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장의 파이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숏비디오와 라이브스트리밍, 음원 SNS 같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에서 음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UMG는 2017년에 페이스북과 파트너십을 맺고 SNS 상의 비디오에 음원 판권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2021년에는 틱톡 사용자가 UMG가 판권과 저작권을 소유한 음악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콘텐츠 음원 삽입에서 더 나아가 음원이 사용되는 새로운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고 온라인 콘서트, 메타버스 속 가상 현실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대체 불가능한 음원의 가치, 그 가치를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불가피해 보입니다.